

# 2016년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

조남훈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chonh@kida.re.kr

## I. 머리말

2016년 하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실적은 어떠했을까? 전반적으로 자료 획득이 제한되고 획득자료의 신뢰성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에 상당히 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하지만 공개된 몇 가지의 북한 군수산업 관련 자료와 최근 북한 김정은의 통치방향 및 산업정책 등을 바탕으로 고찰해 볼 때에 2016년 하반기 북한 군수산업은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군수공장 가동률도 평균 이상의 실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군수산업 하부 분야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것은 미사일 생산분야인 듯하다. 2016년 북한이 핵 개발에 전력을 쏟음으로써 핵실험 및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관련 최종 제품 및 부품의 생산 공장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본래 경제분야의 성과와 실적은 수치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가장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쉽다. 이것이 경제분석에서 통계치를 비롯한 다양한 수치를 사용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실적 자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자료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곤 한다. 이것이 북한경제 연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북한 관련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북한 군수산업을 분석할 때에도 발생한다. 아니 그저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군의 폐쇄성과 안보문제의 은밀성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에 수치자료를 사용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동향 및 성과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족하나마 이 글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 2016년 후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최근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방향

2014년 5월 30일 북한이 발표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정은 담화 이후에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는 원료의 수요와 상품 공급을 정부 차원이 아닌 공장 및 기업소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다.<sup>1)</sup> 공장 및 기업소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진 것이다. 그 결과 공장 및 기업소의 생산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민생분야 제품의 생산에만 적용된다. 무기 및 군수품 생산은 여전히 국가의 사전계획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 그 결과 북한정부의 정책 결정 및 생산량 배정이 군수산업분야 공장의 실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각 군수공장이 정부로부터 얼마 만큼의 생산량을 배정 받았는지가 그 공장의 실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up>2)</sup>

한편, 원료 공급의 원활성도 각 공장의 생산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원활한 원료수급이 뒷받침되어야만 각 공장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력 및 용수 공급과 같은 생산기반 요소의 원활한 공급도 생산량 증가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군수품을 생산하는 북한의 군수공장은 이러한 원료 공급 및 생산기반 요소의 부족을 상대적으로 적게 걱정한다. 왜냐하면 김일성 및 김정은 시대에 ‘국방·경제 병진노선’과 ‘선군노선’ 등을 따르던 북한이 군수공장에 대해서 만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북한 군수산업의 성과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 북한 군수산업정책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핵무력·경제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 개발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생산에도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1) 「노컷뉴스」, 「북한 '5·30조치',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관련 담화」, 2015. 1. 6.

2) 조남훈, 「2016년 상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pp.47-57.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부의 산업투자정책은 재래식 분야 군수산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데에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최근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방향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2016년 하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sup>3)</sup>

2016년 북한의 군수산업정책은 무엇인가? 2016년을 통틀어서 북한정부의 정책적 화두는 무엇보다도 ‘핵 개발 집중’이었다. 북한은 2016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핵 개발의 중요성 및 가속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으며 5월에 열린 제7차 당대회를 통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창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2017년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어 우리 조국이 그 어떤 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말하면서 대단한 핵 개발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 실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 폭발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무장장비 연구 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 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 언급을 통해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뿐만 아니라 운반체의 핵심인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성과도 상당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과 2016년 북한이 실행한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엔진 연소실험 등을 고려했을 때에 2016년 핵 개발과 미사일분야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은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에 북한은 그들의 핵 개발 정책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향후 실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군 현대화 5개년계획 중간총회(중간결산총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군 현대화 5개년계획은 북한군이 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수립한 중기관리계획으로서 2014년에 시작되어 2018년까지 지속된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계획기간의 중간해인 2016년 9월 평양에서 중간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난 기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실행을 독려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행사의 중심 주제는 핵탄두 소형화와 핵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서 2018년까지 북한 육군, 해군 및 지상군의 핵 타격능력을 완비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sup>5)</sup>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 현대화가 주로 북한군의 핵능력 완비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16년 군수산업과 관련된 북한의 두 번째 정책은 군수공장의 현대화이다. 2015년부터 김정은은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할 때마다 현대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3) 조남훈, 「2016년 상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p.49.  
4) 『코나스 뉴스』, 「북, 김정은 2017년 신년사」, 2017. 1. 2(원출처: 『조선중앙통신』, 2017. 1. 1).  
5) 『뉴스 1』, 「북, 군 현대화 5개년 계획 중간총회 준비-RFA」, 2016. 9. 15.

2016년 후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은 2016년 8월에 미사일 프로그램 부품, 탱크 부품 및 주요 동력장치 등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인 ‘1월18일 기계종합공장’을 재차 방문한 후 공장의 현대화를 극찬한 바 있다.<sup>6)</sup> 즉, 김정은은 ‘공장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 및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유연생산체제가 확립됨으로써 노력을 극렬 절약하면서도 생산주기를 단축하고 생산량을 늘렸다.’라고 말하면서 공장의 현대화를 치하하였다. 그런데 김정은의 ‘1월18일 기계종합공장’ 방문은 지난 12월 방문 이후 8개월만의 재방문으로서 김정은이 군수공장 현대화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가리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USKI)의 멜빈 연구원은 “이러한 북한의 군수공장 현대화 정책은 군사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정책의 연장선”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육군, 해군 및 공군 등에 걸쳐서 재래식 군사기지에 대한 개보수 및 확장을 추진했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sup>7)</sup>

그런데 북한의 군수공장 현대화는 이미 상당히 진전된 듯하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2016년 전반기에 다양한 군수공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 그때마다 공장 현대화를 지시하거나 현대화 완료를 치하하였기 때문이다. 평양에 위치한 강동정밀기계공장, 미사일 및 탱크 부품 등을 생산하는 평안남도의 ‘1월18일 기계종합공장’ 및 선박을 수리하는 해군 소속의 ‘10월3일 공장’ 등이 현대화 작업을 이미 마쳤거나 현대화 작업을 추진 중인 군수공장들이다. 한편 김정은이 지난 3월에 방문할 당시에 현대화를 지시하였던, 주요 미사일을 생산하는 남포의 ‘태성기계공장’에서도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6년 군수산업과 관련된 북한의 또 다른 정책은 ‘신규 무기체계의 지속 개발’이다. 김정은은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에서 세상을 놀래도록 만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국방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무기 개발사업을 힘 있게 벌려 국방공업발전에서 최첨단 돌파의 전망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함으로써 국방공업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한 바 있다.<sup>8)</sup>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6년 후반기에도 신규 무기체계 개발에 지속적

6) 『KBS News』, 「RFA, “북 군수공장 현대화 박차 ... 김정은 지시 따른 것”, 2016. 3. 3.

7) 『KBS News』, 「북 김정은, “군수공장” 기계종합공장 8개월 만에 또 시찰」, 2016. 8. 10.

8) 『노동신문』, 「사업총화보고」, 2016. 5. 8.

인 노력을 투입하였다. 그중 한 가지 사례가 북한의 드론 개발이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2016년 12월 '방현항공기수리공장'에서 티타늄 및 탄소복합소재의 대형 공격용 드론인 '방현5'를 개발했다고 한다.<sup>9)</sup> 개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나 북한이 신무기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사실인 듯하다.

한편, 북한은 기존의 무기체계와는 운영개념이 상이한 무기체계 개발을 시도하곤 한다. 최근 개발 중인 열차탑재 이동식 미사일도 이러한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에 필요한 대형차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서 이동식 장거리미사일체계를 제조해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대형차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북한은 열차에 미사일을 적재하여 선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발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차량형 이동식 미사일(TEL)의 열차형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무기체계는 기존에 민수용 열차를 생산하던 '6월4일 차량종합기업소'가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sup>10)</sup>

### III. 2016년 하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성과

#### 1. 2016년 하반기 군수산업의 구조조정과 공장 가동률 증가

2016년 하반기 북한 군수산업은 핵 및 미사일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생산 호조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공장 가동률을 유지한 듯하다. 또한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무기 개발사업을 힘 있게 벌리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진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군수공업분야의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공장 가동률의 증가와 민수공장의 군수공장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공장가동률 증가는 수요 증가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공장 전환은 중장기적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모두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였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sup>11)</sup> 비록 군수공장을 따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군수공장의 가동률 또한 상당한 수준을

9) 『연합뉴스』, 「北, 남한 전역 사정권 대형 공격용 드론 개발」, 2016. 12. 27.  
10) 『연합뉴스』, 「북한, 철길 이용한 이동식 미사일발사 차량 제작 중」, 2016. 8. 31.  
11) 『코나스 뉴스』, 「북, 김정은 2017년 신년사」, 2017. 1. 2(원출처: 『조선중앙통신』, 2017. 1. 1).

유지한 듯하다.

한편, 민수공장의 군수공장 전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3대 조선소 중 하나인 ‘청진조선소’는 민간 선박건조 일감의 부족으로 2013년경 기존의 군수공장과 민수공장을 합하여 군수공장으로 완전히 전환시킨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청진조선소는 군의 경비정 및 6인 침투용 반잠수정을 활발히 생산함으로써 전환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평안북도 삭주에 위치한 ‘29호 공장’을 들 수 있다. 이 공장은 원래는 거의 방치된 화학공장이었으나 현재는 잠수함 배터리 부품 생산 공장으로 전환되었다.<sup>12)</sup> 그런데 이 화학공장이 배터리공장으로 전환된 이유 중 하나는 공장 인근인 삭주에 배터리 원료인 니켈 광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배터리의 원료인 니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장은 적어도 2018년까지는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군현대화 5개년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핵 타격을 완비하는 것이 북한 해군의 목표인데 그로 인해 잠수함탑재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잠수함이 지속적으로 건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열차 이동식 장거리미사일을 생산하는 ‘6월4일 차량종합기업소’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이 공장은 원래 민수용 열차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군현대화 5개년계획을 선포한 2014년부터 군수공장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소속도 내각 철도성에서 군수산업을 관장하는 제2경제위원회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런데 2016년 3월 김정은이 핵 공격수단을 다중화 및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현재 이 공장은 제2경제위원회의 감독을 바탕으로 철길을 이용한 이동식 장거리미사일 발사대를 활발히 제작하고 있다.<sup>13)</sup>

## 2. 대북제재와 2016년 후반기 북한 군수산업 성과

우리는 이상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민수공장의 군수공장 전환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전환이 완료된 공장들도 현재 활발히 가동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문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로 대표되는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군수산업의 활발한 생산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생산 애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일부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생산 애로’의 대부분은 원료 조달의 제한으로부터 발생한다. 군수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2) 『채널 A』, 「베일 속 북 ‘29호 공장’ 첫 포착」, 2016. 3. 2.

13) 『연합뉴스』, 「북한, 철길 이용한 이동식 미사일발사 차량 제작 중」, 2016. 8. 31.

여러 가지 요소의 투입이 필요하다. 노동, 원재료 및 에너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중 노동은 북한 국내에서 얼마든지 조달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국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핵심 원료 및 부품 등은 해외로부터 조달될 수밖에 없다. 또한 화학제품의 원료 및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는 원유도 해외로부터 조달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이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군수제품 생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의 무기 생산도 북한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수조치 및 수요 감소로 인해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실 이제까지의 대북제재 효과는 두 가지 이유에서 미미하였다. 첫째, 유엔 결의안 2270호가 민생 목적의 국제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강력한 금수조치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의지가 부족하여서 대북제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생 목적의 면제 조항을 없애고 수입상한선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채택으로 대북제재 효과 감소요인(loophole)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향후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의지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미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 가지 사례로 2016년 3월 중국 공안은 북한 제2경제위원회와 무기 부품을 밀거래하던 중국인 수십 명을 체포하였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직후의 일이다.<sup>14)</sup> 한편, 2016년 12월 30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자국 내 이행을 규정한 대통령령 729호에 서명함으로써 대북제재 이행에 뒤늦게나마 동참한 바 있다.<sup>15)</sup>

2016년 후반기에는 군수산업에 대한 대북제재 효과의 일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제품의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현상을 들 수 있다. 2016년 5월에 북한 일부 시장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7,100 북한원에서 10,700 북한원으로 오르고 디젤유 가격도 5,350 북한원에서 6,350 북한원으로 상승하였는데<sup>16)</sup> 이는 북한의 유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의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우선 분야인 북한의 군수산업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선 분야인 군수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는 미사일 원료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의 대부분은 등유의 일종인 캐로신이라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액체연료는 원유의 정제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거나 해외로부터 수입된다. 그런데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바탕으

14) 『헤럴드경제』, 「중국 공안, 북한과 무기밀매 중국인 수십 명 체포」, 2016. 6. 16.  
15) 『국민일보』, 「푸틴, 뒤늦게 대북제재 시행령 서명」, 2017. 1. 1.  
16) 『뉴스스』, 「RFA, "북, 기름값 상승 ... 러시아 공급 중단 영향"」, 2016. 5. 18.

로 북한의 로켓연료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원유 부족이 장기화되면 액체연료의 공급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류의 공급 부족으로 이전에는 절대 손대지 않던 '4호 창고' 및 '50호 사업소'의 '전시 예비물자'까지도 돌려쓰라는 지시를 김정인이 내렸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17)</sup>

둘째는 북한군의 경제 및 군사 활동 제약이다. 만약 중장기적으로 유류가 부족해지면 북한 군수공장의 가동이 영향을 받고 군수품의 생산도 줄어들 것이다. 한편, 북한군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운영하는 주유소의 채산성이 유류 공급 감소로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채산성 악화는 중국에는 군이 시장으로부터 획득하는 물품의 구매량 감소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관련 군사활동도 줄어들게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군의 비행훈련은 상당량의 항공유를 필요로 하는데 대북제재가 지속되면 항공유 부족으로 북한군의 비행훈련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의 징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대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북한정부는 지난 9월에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북한 최초의 에어쇼를 개최하고 북한 항공기의 비행시범을 선보인 바 있다.<sup>18)</sup> 행사의 개최를 위해서는 상당량의 항공유가 소비되었을 것이지만,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상황이 항공유 부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북한이 에어쇼를 개최한 것은 대북제재의 무용성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자국 내 항공유 부족에도 불구하고 에어쇼를 개최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에어쇼 개최 여부로 북한의 항공유 부족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제사회의 항공유 금수조치가 북한의 항공유 부족을 초래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듯하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북제재의 효과는 반드시 커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는 국제 부품거래 및 수출의 제한이다. 대북제재의 내용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것은 북한의 무기 생산이나 핵 개발에 사용되는 부품 및 최종 품목의 금수조치이다. 이 조치에 따라서 북한은 무기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재료를 수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국이 생산한 무기체계를 수출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제한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6월에 중국 공안은 북한과 무기 생산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밀매한 중국인 수십 명을 단둥에서 체포한 바 있다.<sup>19)</sup> 또한 지난 2016년 6월에는 한 스페인 국민이 북한과의 무기밀매를 이유로 체포된 바 있다.<sup>20)</sup>

17) 「뉴데일리」, 「북김정은 대북제재 대응에 전시예비물자탕진」, 2016. 7. 29.

18) 「경향신문」, 「북한 첫 국제 에어쇼에 미제 군용헬기 등장」, 2016. 9. 25.

19) 「MBN」, 「중국 공인, 단둥서 북과 무기밀매 자국민 수십명 체포」, 2016. 6. 16.

20) 「연합뉴스」, 「진북 스페인 남성, 무기 밀매 혐의 체포」, 2016. 6. 15.



한편, 지난 2016년 4월 이집트에서도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밀매에 관여한 북한인 3명이 추방되었다.<sup>21)</sup> 이러한 단속과 체포가 본격화될수록 북한의 무기 생산은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최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16년에도 중국을 통해서 가스 원심분리기 등 핵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들여온 부품을 북한의 대리인에게 넘기는 관행이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2)</sup>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항공기인 P-750이 2016년 9월 원산에서 개최된 국제에어쇼에 등장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수입업자에 의해 뉴질랜드로부터 합법적으로 수입된 항공기가 북한으로 불법 판매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sup>23)</sup>

하여간 대북제재의 지속은 북한의 경제활동 및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중국에는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수요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 경우 향후 군수공장의 생산 감소 및 가동률 저하가 초래될 수도 있다. 최근에 북한인민군(KPA) 소속의 군수공장이 일반소비재 제조 및 판매에 활용된다는 보도가 있었다.<sup>24)</sup> 또한 비밀 누출 방지를 위하여 해외 송출이 제한되던 자강도 출신의 노동인력 100명이 외화벌이를 위하여 중국으로 송출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sup>25)</sup> 이 모두 군수공장의 수요 감소로 해석될 수도 있는 현상들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현상이 군수공장의 본격적인 가동률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군수공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향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 북한 군수산업의 침체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2017년 이후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와중에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21) 『세계일보』, 「이집트, 유엔 제재 대상 포함 무기 밀매 북한인 3명 추방」, 2016. 4. 28.  
22) 『VOA』, 「새해 인터뷰: 올브라이트 ISIS 소장, “북한 2016년에도 핵 물자 수입.. 수소탄 개발 계속할 것」, 2017. 1. 2.  
23) 『SBS 뉴스』, 「뉴질랜드 ‘북한 에어쇼 등장’ 항공기 반출 경위 조사」, 2016. 10. 4.  
24) 『연합뉴스』, 「구글어스로 살펴보니... 김정은 이후 북한에 시장 20개 생겨나」, 2016. 12. 27.  
25) 『연합뉴스』, 「북, 군수기지 자강도 주민까지 외화벌이 파견」, 2017. 1. 5.

## 참고문헌

- 『경향신문』, 「북한 첫 국제 에어쇼에 미제 군용헬기 등장」, 2016. 9. 25.
- 『국민일보』, 「푸틴, 뒤늦게 대북제재 시행령 서명」, 2017. 1. 1.
- 『노동신문』, 「사업총화보고」, 2016. 5. 8.
- 『노컷뉴스』, 「북한 ‘5·30조치’,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관련 담화」, 2015. 1. 6.
- 『뉴데일리』, 「北김정은 대북제재 대응에 전시예비물자 탕진」, 2017. 7. 29.
- 『뉴스 1』, 「북, 군현대화 5개년 계획 중간총화 준비-RFA」, 2016. 9. 15.
- 『뉴시스』, 「RFA “북, 기름값 상승 ... 러시아 공급 중단 영향」, 2016. 5. 18.
- 『세계일보』, 「이집트, 유엔 제재 대상 포함 무기 밀매 북한인 3명 추방」, 2016. 4. 28.
- 『연합뉴스』, 「구글어스로 살펴보니... 김정은 이후 북한에 시장 20개 생겨나」, 2016. 12. 27.
- 『연합뉴스』, 「北, 남한 전역 사정권 대형 공격용 드론 개발」, 2016. 12. 27.
- 『연합뉴스』, 「북, 군수기지 자강도 주민까지 외화벌이 파견」, 2017. 1. 5.
- 『연합뉴스』, 「북한, 철길 이용한 이동식 미사일발사 차량 제작 중」, 2016. 8. 31.
- 『연합뉴스』, 「친북 스페인 남성, 무기 밀매 혐의 체포」, 2016. 6. 15.
- 조남훈, 「2016년 상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채널 A』, 「베일 속 북 ‘29호 공장’ 첫 포착」, 2016. 3. 2.
- 『코나스 뉴스』, 「북, 김정은 2017년 신년사」, 2017. 1. 2.
- 『헤럴드경제』, 「중국 공안, 북한과 무기밀매 중국인 수십 명 체포」, 2016. 6. 16.
- 『KBS News』, 「RFA, 북 군수공장 현대화 박차 ... 김정은 지시 따른 것」, 2016. 3. 3.
- 『KBS News』, 「북 김정은, ‘군수공장’ 기계종합공장 8개월 만에 또 시찰」, 2016. 8. 10.
- 『MBN』, 「중국 공안, 단둥서 북과 무기밀매 자국민 수십 명 체포」, 2016. 6. 16.
- 『SBS 뉴스』, 「뉴질랜드 ‘북한 에어쇼 등장’ 항공기 반출 경위 조사」, 2016. 10. 4.
- 『VOA』, 「(새해 인터뷰: 올브라이트 ISIS 소장) “북한 2016년에도 핵 물자 수입 ... 수소탄 개발 계속할 것」, 2017. 1. 2.

## 관련자료

신범철 외, 『북한 군사연구 2012』, 한국국방연구원, 2012.

Anthony, H. Cordesman, “Korean Peninsula Military Modernization Trends,” Working Draft, CSIS, Sep. 20. 2016.